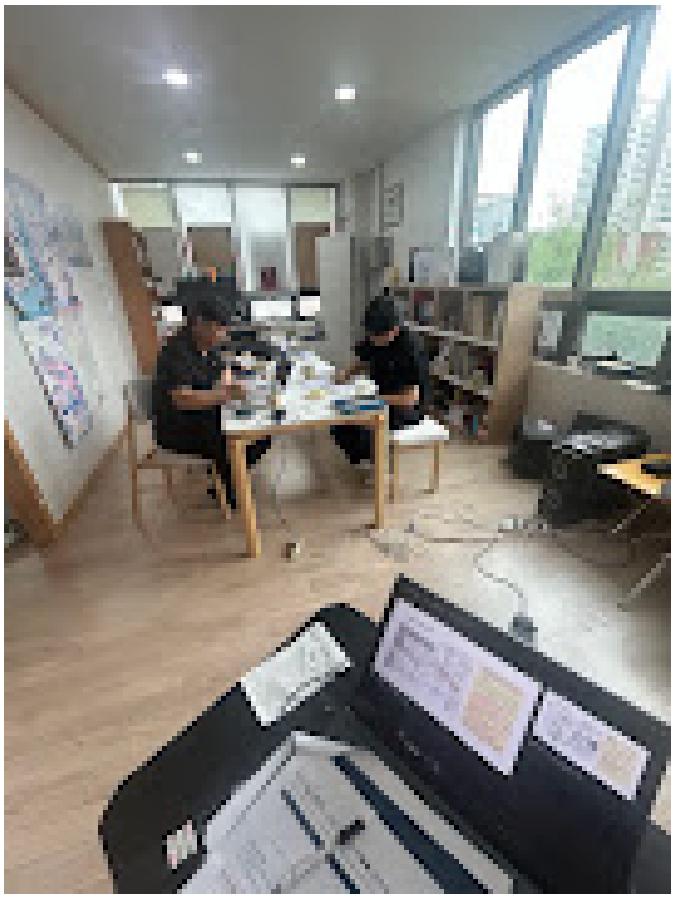
카페 공지사항 및 랩 위드 소식 >

한 반에 교육생 네 명만 받는 이유 _ 실무 교육 아카데미 1기를 시작하며

기술사업화 랩 위드
2026.09.18. 10:10 조회 0

댓글 0 URL 복사





오늘 실무 교육 아카데미 첫 수업을 열었습니다.
한 반 정원은 네 명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불려 가는 교육은 대개 두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혼자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Q&A 몇 분 받고 끝납니다.
수강생에게 뭐가 남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건 만족도 조사 결과뿐인데, 그 점수는 대부분 높게 나옵니다. 참가비 없이 왔고, 식사도 했고, 담당자와 인사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수강생 옆에 앉아 같이 씁니다. 네 명이 한계입니다.

첫 기수는 R&D 사업계획서 과정 두 분, PSST 과정 네 분(정원 마감)입니다.

문장 하나를 붙잡고 "이건 평가위원이 이렇게 읽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며 고쳐 나갔습니다.

예전에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장황하게 계획서를 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강의만 듣고 나오면 계획서는 여전히 빈칸입니다.
그게 아쉬워서 만든 과정이라, 초안을 들고 나가시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수업 후에 꼼꼼히 받을 예정입니다. 좋았던 점보다 아쉬웠던 점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는 **모의 선정평가위원회**도 있습니다. 직접 쓴 계획서로 평가를 받아 보는 자리입니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같이 하시죠.

^^ 후기는 곧 올리겠습니다.

1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린봇

기술사업화 랩 위드

댓글을 남겨보세요

등록